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허연주

2019년 6월

청소년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지도교수 서미정

허연주

이 논문을 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허연주의 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손희정 (印)
위 원 김주영 (印)
위 원 서미정 (印)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년 6월

Types b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ffline Bullying Bystanders and Participant
behaviors in Cyb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Yeon-Ju Heo

(Supervised by professor Mijung S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June 2019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오프라인 괴롭힘	7
1) 오프라인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7
2) 참여자 유형 및 특성	8
2. 사이버 괴롭힘	10
1)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10
2) 참여자 유형 및 특성	14
3.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	15
4.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	16
1)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17
2) 위험 부담감	18
3) 피해자 귀인	19

III. 방법	21
1. 연구 대상 및 절차	21
2. 측정도구	22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25
IV. 결과	27
1.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	27
2.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주변인 유형 구분	30
3.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차이	33
V. 논의 및 결론	37
참고문헌	41
부록	51
Abstract	59

표 목차

<표 1>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	12
<표 2> 연구대상의 분포	21
<표 3>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 문항 예시 및 신뢰도 계수	23
<표 4>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문항 예시 및 신뢰도 계수	24
<표 5>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	29
<표 6>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31
<표 7>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33

그림 목차

<그림 1>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표준화 점수	31
<그림 2>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표준화 점수	35

<국문초록>

청소년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허연주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지도교수 서미정

이 연구는 괴롭힘(bullying)이 오프라인을 넘어 사이버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감안하고, 특히 오프라인 괴롭힘의 집단맥락적 관점을 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을 목격한 청소년 주변인에 주목하였다. 먼저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방관 및 방어행동 등 참여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을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및 피해자 귀인의 유사성에 따라 주변인 유형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도출된 하위유형 간에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지역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주변인으로 분류된 56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에서 각각 같은 참여행동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오프라인과 사이버 괴롭힘 간에도 같은 참여행동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오프라인과 사이버의 각 참여행동 사이의 연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변인을 중심으로 주변인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인 유형은 ‘친-가해형’(17.1%), ‘반-가해형’(47.7%), ‘책임 전가·위험부담형’(35.2%)로 분류되었다. 유형을 살펴보면 ‘친-가해형’ 집단은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반-가해형’ 집단은 친-가해형 집단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전가시키며,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움으로 인한 위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주변인 가운데 방관자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집단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 피해 행동,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및 방어행동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가해형’ 집단은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낮아 가해행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유형은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방어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가해형’ 집단은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아 가해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유형은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방어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친-가해형 집단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은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 유형은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방관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어행동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의 각 참여행동간 연관성이 높음을 통해 현장에서 괴롭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이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의 중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이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켜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과 관련성을 명확히 탐색할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 군집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또래 간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한 유형인 괴롭힘(bullying)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2017년 2차 발표 시 피해 응답률이 0.8%였으나 1.3%로 0.5%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교육부, 2018). 또한 학교폭력 경험의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와 괴롭힘의 행동이 잔인하며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2017; 이아름, 2014; 정지윤, 201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실태조사, 2014). 이러한 괴롭힘의 피해자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어(김재엽, 이근영, 2010; 최수미, 김동일, 2012), 괴롭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김규리, 2019; 김정훈, 2016; Newman, Lohman, & Newman, 2007).

기존 괴롭힘 현상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하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따돌림, 학교폭력, 또래괴롭힘, 집단괴롭힘, 전통적 괴롭힘, 오프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과 구분하고자 기존 괴롭힘 현상을 오프라인 괴롭힘(offline bullying)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오프라인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힘이 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한 또래에게 신체적·심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Smith, 1991). 오프라인 괴롭힘은 직접적인 공격 행동인 때리기, 발로 차기, 밀기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괴롭힘과 타인을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언어적 형태의 괴롭힘이 있다. 이외 또래 집단에서 특정한 한 학생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등을 포함하는 관계적 형태의 괴롭힘으로 나타난다(김소리, 2015; 서미정, 2006; 오인수,

2011; Macklem, 2003; Smith & Sharp, 1994).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괴롭힘 양상도 사이버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가고 있다(최진오,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 또한 연구마다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폭력, 사이버 비행, 사이버 일탈,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이버 괴롭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괴롭힘 행동을 의미한다(곽미성, 2015;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조운오, 2017; Hinduja & Patchin, 2007).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학자마다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Willard(2007)의 총 7가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운오(2013)는 국내의 사이버 괴롭힘 형태를 고려하여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사이버불링 피해 신고 사례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조운오, 2017). 한국형 사이버 괴롭힘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익명성 콘텐츠 유포형’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을 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집단적 사이버불링형’은 구성원들끼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성적·루머유포형’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통제하기 위해 성적 괴롭힘이나 루머를 유포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 ‘경제적 반복 갈취형’은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과 경제적인 착취 행동이 중복하여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 괴롭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채팅방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선아, 2016;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이러한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기존의 사이버 괴롭힘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익명성이 보장되었던 기존의 사이버 괴롭힘과는 달리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폭력의 편의성으로 보다 편리하게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문선아, 2016).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채팅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에 초점을 두었다(이창호, 이경상, 2013).

오프라인 괴롭힘을 집단맥락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자들은 오프라인 괴롭힘에 참여하는 역할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주변인(bystanders)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괴롭힘 연구들은 집단맥락적 관점을 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주변인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변인들의 반응에 따라 오프라인 괴롭힘이 강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오프라인 괴롭힘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주변인을 통한 접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변인에는 가해자를 도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옆에서 괴롭힘 상황을 부추기는 역할의 가해동조자와 괴롭힘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역할의 방관자, 그리고 가해자에게 가해행동을 그만하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위로하는 역할의 방어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김규리, 2019; 김정훈, 이승연, 2016; 오승화, 2018; 오인수, 2010; Gini, Pozzoli, Borghi, & Franzoni, 2008).

한편 오프라인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김경은, 최은희, 2012; Huewmann, 2007; 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 사이버 괴롭힘에서도 같은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 및 피해행동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최은희, 2012; 김경은, 최은희, 2017; Hinduja & Patchin, 2007).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은 오프라인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 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크기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사회적으로 배척된 개인이라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해자로 작용할 수 있다(Law, Shapka, Hymel, Olson & Waterhouse, 2012).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 또한 같은 역할 점수 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희옥, 2005). 특히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괴롭힘의 각 참여행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악한 연구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가 주변인에 비해 역할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가해동조자, 방관자 및 방어자 등 주변인들은 역할 이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5; 심희옥, 2005; Salmivalli et al., 1998). 주변인 중에서는 방관자와 가해동조자가 역할 이동이 가장 많았는데, 방관

자는 가해동조자와 방어자 순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인 역할로의 이동이 많았으며, 가해동조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5).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주로 가해 및 피해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해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간의 관련성과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역할 이동성에 따라 오프라인 주변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양한 참여행동에 개입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진 괴롭힘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참여행동에 더욱 개입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괴롭힘 감소 및 예방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주변인의 행동, 즉 가해동조, 방관 및 방어행동까지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을 들 수 있다. 먼저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은 학급 내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수준으로 학급 구성원들이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되는 태도, 신념, 행동에 대한 학급 구성원들의 기대수준을 의미한다(Nipedal, Nesdale, & Killen, 2010; 정상호, 2015).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한 학급 규범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방어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가해 및 친-가해행동은 적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은아, 이승연, 2011; 심미경, 서미정, 2013; Salmivalli & Voeten, 2004). 청소년 시기는 집단에의 소속 욕구가 강한 시기(김선정, 2014), 또래의 영향력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급 구성원들이 괴롭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 부담감은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발생하는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를 도움으로써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이 포함된다(서미정, 2006). 위험 부담감을 많이 느낄수록 가해동조 및 방관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방어행동은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서미정, 2006). 괴롭힘 상황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되지만 피해자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관계

맺기를 피하는 등의 위험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어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미정, 2006; Oliver, Hoover, & Hazler, 1994).

피해자 귀인은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괴롭힘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다(김현주, 2003; 지명희, 1998).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잘못 귀인하고 피해자가 따돌림 당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은 괴롭힘의 결과보다 상황적 맥락에 근거를 두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다(김현주, 2003; 서미정, 2008; 이상균, 2000).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를 많이 할수록 가해동조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방어행동은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김현주, 2003).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가해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없게 만들어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 등의 심리적 특성이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주변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또래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며 사이버 괴롭힘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Barlett & Coyne, 2014),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여, 확인된 주변인의 유형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예방 및 중재에 유용한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유사성에 따른 주변인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 유형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오프라인 괴롭힘

1) 오프라인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괴롭힘은 mobbing이라는 용어로 Heinemann(1973)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Olweus(1978)에 의해 bully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에서 bullying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문미영, 2017; 서미정, 2006; Heinemann, 1973; Olweus, 1978). 이러한 괴롭힘 현상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나타나면서 사이버 괴롭힘의 등장을 고려하며 괴롭힘이 발생하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오프라인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오프라인 괴롭힘(offline bullying)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개인에게 행해지는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정의된다(서미정, 2008; Smith, 1991). 이러한 오프라인 괴롭힘은 따돌림, 학교폭력, 또래괴롭힘, 집단괴롭힘, 전통적 괴롭힘, face-to face bullying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소리, 2015; 김정훈, 이승연, 2016; 송지연, 2016; 심미경, 서미정, 2013; 오승화, 2018; 오인수, 2011; 정지윤, 2018; Dooley, Pyszalski, & Cross, 2009; Olweus, 1994; Sticca & Perren, 2012).

오프라인 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Macklem, 2003; Smith & Sharp, 1994). 신체적 괴롭힘은 때리기, 밀기, 차기 등의 행동 등 직접적인 공격 행동으로 직접적인 괴롭힘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 유형에 해당한다. 언어적 괴롭힘은 놀리기, 욕하기, 위협하기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관계적 괴롭힘은 나쁜 소문내기, 따돌리기, 집단 따돌림 등의 간접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관계적 괴롭힘은 피해학생들을 사회적 관계에서 고의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으로 또래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사춘기의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소리, 2015; 오인수, 2011).

이러한 오프라인 괴롭힘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의도성이다. 괴롭힘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주도적이며, 의도적인 행위로 우발적인 행동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둘째, 반복성이다. 일회성이 아닌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부정적인 행위이다. 셋째, 힘의 불균형이다.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힘이 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행위이다. 동등한 힘을 가진 관계에서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피해가 지속되는 것이다(김규리, 2019; 서미정, 2006; 이가강, 2017).

이상의 정의와 특징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오프라인 괴롭힘이란 힘이 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신체적·언어적·관계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참여자 유형 및 특성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자 역할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오프라인 괴롭힘이 집단맥락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들 주변에 있는 주변인(bystander)으로 구분할 수 있다(Salmivalli, Lagerspetz, Bjoorkqvist, Osterman, & Kaukiainen, 1996).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괴롭힘의 참여자 유형을 직·간접적 형태의 괴롭힘을 주도하는 가해자(bullies),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victims), 가해자를 따르며 가해행동에 참여하지만 주도하지는 않는 조력자(assistants), 가해행동을 부추기는 강화자(reinforcers),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가해행동을 말리는 피해아방어자(defenders), 괴롭힘을 보고도 모른 채하거나 가만히 보고만 있는 방관자(outsiders)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심희옥, 2005; 윤성우, 2004; 차윤희, 2005; Salmivalli & Voeten, 2004; Sutton & Smith, 1999).

Sutton과 Smith(1999)의 연구에서 동조자와 강화자의 역할 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에 있는 참여자들이 가해행동을 강화하거나 저지하는 역할로 구분하여 서미정(2006)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조자와 강화자를 하나의 역할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bystanders)을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가해동조자(bully-followers), 암묵적 강화 역할을 하는 방관자(outsiders), 강화 차단 기능을 하는 방어자(defenders)로 구분한다.

가해자는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주도하며 나서는 역할이다. 피해자는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언어적, 물리적, 관계적 측면에서 괴롭힘의 주요 대상이 되며 괴롭힘을 당하는 역할이다(김규리, 2019; 오승화, 2018).

주변인에 해당하는 역할 중 가해동조자는 가해자를 도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옆에서 웃거나 소리를 지르며 괴롭힘 상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가해동조자의 행동은 친가해적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권력 구조상 가해자보다 힘이 약하다는 차이점을 지니며,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강화를 주게 되어 괴롭힘 행동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김규리, 2019; 오승화, 2018; 오인수, 2010).

방관자는 오프라인 괴롭힘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괴롭힘 행동을 암묵적으로 강화하며 가해자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괴롭힘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김규리, 2019; 오승화, 2018). 이러한 방관행동은 괴롭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괴롭힘을 강화하게 되며 괴롭힘 상황에서의 목격자들에게 피해자가 괴롭힘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게 하여 개입을 차단하게 한다(김정훈, 이승연, 2016; Gini et al., 2008).

방어자는 가해자에게 가해행동을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방어자는 가해행동을 멈추도록 노력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자로 기능을 하며(임재연, 2013), 힘의 불균형 상태를 깰 수 있도록 하여 괴롭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오승화, 2018). 또한 Hawkins 외(2001)의 연구에서 괴롭힘 상황에서 소수의 학생이 방어 행동을 보였을 때 10초 이내에 50% 이상의 괴롭힘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통해서도 방어 행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방

어자(24.2%), 방관자(21.1%), 가해 동조자(18.3%), 피해아(14.2%), 가해자(12.6%), 역할 무(9.6%)로 나타났다. 심희옥(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에서는 방어자(18.6%), 방관자(15.4%), 조력자(11.6%), 강화자(10%), 가해자(8.8%), 피해자(6%), 역할 무(29.6%)로 나타났으며, 1년 뒤 다시 조사한 5, 6학년에서는 방어자(18.8%), 방관자(23.2%), 조력자(10.6%), 강화자(10.6%), 가해자(11.7%), 피해자(4.2%), 역할 무(20.8%)로 나타나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자 역할은 시간 흐름에 따라 역할마다 안정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희옥(2005)의 연구 결과 초등학교 4, 5학년의 참여자 역할은 1년 후 같은 역할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모든 역할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2015)의 연구에서 모든 역할에서 같은 역할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 가해동조자와 방관자는 시간 흐름에 따른 역할 유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행동에서 학년의 차이 및 역할 유동성을 알 수 있으며, 역할이 할당되지 않는 역할 무에 속하는 집단을 포함한 주변인에 해당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주변인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주된 참여행동은 있으나 한 가지의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특성(김정훈, 2016) 괴롭힘의 집단맥락적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으로 역할이 분류되는 가해동조자, 방관자, 방어자 외에 역할 무 집단을 함께 주변인으로 보고자 한다.

2. 사이버 괴롭힘

1)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은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괴롭힘 행동으로 정의한다(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조윤오, 2017;

Owleus, 1994).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 사이버 폭력(cyber-violence), 사이버 비행(cyber delinquency), 사이버 일탈(cyber deviance), 온라인 괴롭힘(on-line bullying)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소리, 2015; 문선아, 2016; 배성만, 2016;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오인수, 2011; 이소영, 2018; 임숙희, 송영일, 곽대훈, 2018; Baker, 2014; Dooley et al., 2009; Sticca & Perren, 2012).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2017년 1차에서 9.8%에서 2018년 1차에서는 10.8%로 1%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교육부, 2018),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은 새로운 신조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여 괴롭히는 ‘카톡 감옥’, 핫스팟을 이용해 데이터를 뺏는 ‘와이파이 셔틀’ 등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이소영, 2018).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Willard(2007)의 플레이밍(flaming)¹⁾, 사이버 희롱(cyber 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가장하기(masquerade), 폭로하기(outing), 배척하기(exclusion),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으로 나눈 총 7가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박대식, 2015; 이소영, 2018). 조운오(2013)는 국내의 사이버 괴롭힘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아이디 도용,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배제, 플레이밍, 사이버 명령, 안티 카페, 사이버 왕따 놀이의 1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고아라, 2016; 조영은, 2017).

또한 조운오(2017)는 온라인 사이버불링 피해 신고센터의 접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사이버 괴롭힘 유형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5개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사이버 괴롭힘 유형을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1>에 Willard(2007)의 7가지 유형과 조운오(2013)의 12가지 유형의 구분을 함께 정리하였다.

1) 플레이밍(flaming)이란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무례한 메시지를 개인 및 집단에 보내는 행동을 의미한다(박대식, 2015; 이소영, 2018).

<표 1>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

사이버 괴롭힘 유형화	내용	Willard(2007)	조운오(2013)
익명성 콘텐츠 유포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사이버 희롱 명예훼손 가장하기 폭로하기 배척하기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배제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아이디 도용
집단적 사이버불링형	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		사이버 왕따 놀이 안티 카페 사이버 감옥
성적·루머유포형	성적인 내용 혹은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플레이밍	사이버 성폭력 플레이밍
강제적 반복 갈취형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의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 명령

첫 번째 유형은 ‘익명성 콘텐츠 유포형’으로 사이버 콘텐츠 유포, 사이버 집단 배제/고립 및 가해자 익명성이 해당되었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소수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집단적 사이버불링형’으로 악성댓글과 집단적 모욕이 해당되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의 형태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성적·루머 유포형’으로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루머유포가 해당되는 사이버 괴롭힘의 형태이다. 성적 괴롭힘 및 루머유포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 유형은 ‘경제적 반복 갈취형’으로 사이버 경제적 괴롭힘, 피해자 의사 무시/반복 행동이 해당되었으며, 금품 갈취 및 와이파이어들 등이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과 경제적 착취 행동이 중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조운오, 2017).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익명성이다.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고통을 덜 인지하며, 죄책감을 덜 느껴 더 쉽게 괴롭힘 행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반복성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물이 공유될 수 있어 한 번 시작되면 막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신속성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할 곳이 없다. 넷째, 힘의 불균형이 전제되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전제되지 않아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피해자였던 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Rigby(2007)는 오프라인 괴롭힘에서보다 사이버 괴롭힘에서 힘의 불균형의 개념화 및 평가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하였으며, 오프라인 괴롭힘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은 ‘보다 발전된 기술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김소리, 2015; 모정은, 2014; 송지연, 2016; 이소영, 2018; 조영은, 2017; Langos, 2012).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크기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사회적으로 배척된 개인이라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해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aw et al., 2012). 이와 같은 사이버 괴롭힘의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오프라인 괴롭힘 피해자에 비해 더 큰 잠재적 위험성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이소영, 2018).

최근에는 카따, 떼카, 카톡방폭, 카톡감옥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며 사이버 괴롭힘이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사이버 괴롭힘과 이러한 채팅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첫 번째, 기존의 사이버 괴롭힘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모르는 사람에게 괴롭힘이 이루어졌으나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의 경우 대부분 지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폭력의 편의성으로 채팅방을 통해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이랑 동영상, 음성 메시지 등을 보다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 기존의 사이버 괴롭힘보다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문선아, 2016).

이처럼 기존의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지만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은 주로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문선아, 2016; 이창호 외, 2014). 즉,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은 채팅방을 매개로 오프라인 괴롭힘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isholm & Day, 2013). 이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오프라인 공간을 벗어난 사이버 공간에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채팅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상의 정의와 특징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이버 괴롭힘이란 온라인에서 메신저²⁾를 통해 누군가에게 고의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참여자 유형 및 특성

사이버 괴롭힘 참여자 역할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자 분류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와 주변인인 가해동조자, 방관자, 방어자로 구분하고 있다. 가해자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는 괴롭힘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역할이다. 주변인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다(고아라, 2016; 조영은, 2017; Salmivalli et al., 1996).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 유형 중 가해동조자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메시지, 동영상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괴롭힘과 관련된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이 손쉽게 동조행동을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을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송지연, 2016; 이소영, 2018).

방관자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방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글, 사진

2) 메신저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스토리 등 온라인으로 1:1 또는 그룹 채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두산백과).

이나 동영상 공유하지 않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 혹은 ‘싫어요’ 등을 누르지 않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한다(송지연, 2016; 이소영, 2018).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에게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Obermaier, Fawzi와 Koch(2014)의 연구에서 페이스북에서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누가 읽었는지 확인 할 수 있게 조작하여 2명 읽음, 24명 읽음, 5,025명 읽음으로 세 집단으로 실험했을 때, 글을 읽은 사람이 많을수록 방관자 역시 증가했다. 이는 누군지 모르는 주변인이 많을수록 ‘누군가가 하겠지’와 같은 책임감의 분산이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Latane & Darley, 1970; Thornberg, 2007; 송지연, 2016).

방어자는 괴롭힘 상황을 멈추도록 가해자에게 직접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괴롭힘 관련 게시물에 ‘싫어요’를 누르거나 피해자에게 위로를 건네는 간접적인 행동을 한다(송지연, 2016; 이소영, 2018).

3.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기의 성장과 확산으로 인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라인,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스토리 등의 메신저는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문선아, 2016; 이소영, 2018). 과거의 사이버 괴롭힘은 주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불특정한 개인에게 악성 댓글 달기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스마트폰의 확산 이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아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이창호 외, 2014).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프라인 괴롭힘이 사이버 매체를 통해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문선아, 2016; 최숙영, 2014).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Hinduja와 Patchin(2007)은 오프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사이버 괴롭힘에서 피해자,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자가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Raskauska와 Stoltz(2007)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85%가 오프라인 괴롭힘 피해자였으며,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 중 95%가 오프라인 괴롭힘에서도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오인수(2011)는 전체 학생 중 20%가 넘는 학생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경은과 최은희(2012)는 오프라인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 및 피해행동 모두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이 중복되어 발생함을 알 수 있어 사이버 괴롭힘을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괴롭힘에 비해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들은 분노, 무력감, 두려움 및 슬픔을 느끼는 등 오프라인 괴롭힘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오인수, 2011; Hoff & Mitchell, 2009; 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Williams & Guerra, 2007). 이처럼 오프라인 괴롭힘이 사이버 매체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괴롭힘은 집단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 피해자 및 주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사이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주로 가해·피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과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가해 및 피해와 주변인까지 포함한 참여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이 가해동조, 방관 및 방어행동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은 학급 규범, 학급 기준, 학급 규칙, 집단기준, 집단 규범, 지각된 학급기준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은아, 이승연, 2011; 김정흔, 2016; 심미경, 서미정, 2013; 오승화, 2018; 정상호, 2015; 최기원, 2012).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이란 학급 내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수준으로 학급 구성원들이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태도와 신념, 행동에 대해 학급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대수준이다(Nipedal et al., 2010; 정상호, 2015).

오프라인 괴롭힘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집단 내 또래의 영향력은 주변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는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로 집단의 규범에 맞춰 개인의 의견,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선정, 2014).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특징으로 인해 학급 구성원들이 괴롭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또래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학급 규범은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학급 규범은 가해, 친-가해행동과는 부적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 방관 및 방어행동과는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Salmivalli & Voeten, 2004). 또한 Werner와 Nixon(2005)의 연구에서 학급기준이 관계적 공격성에 허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공격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괴롭힘에 대한 학급 기준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흔, 2016). 국내 연구에서도 학급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은아, 이승연, 2011), 학급에서 피해자를 돕고 가해행동을 저지하는 행동이 가치 있다고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방어행동의 증가를 예측한다고 보고되었다(이승연, 2014). 심미경과 서미정(2013)의 연구에서도 학급 구성원들이 또래괴롭힘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지각할수록 방관행동에는 덜 개입하고 방어행동에는 더 많이 개입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급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해 허용적으로 인식하는지, 비허용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주변인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변인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2) 위험 부담감

위험 부담감은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은 피해자를 도움으로써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이 포함된다(서미정, 2006). 또래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또래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응답자의 25%가 ‘피해아에 대해 불쌍한 느낌은 들지만 자신이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잠자코 있다’고 반응하였다는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김용태, 박한샘, 1997).

손실-이득 모델(cost-benefit model)을 통해 위험 부담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손실-이득 모델에서는 도움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손실, 이득요인을 전제로 한다. 손실은 도움행동을 할 때 시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신체적 상해, 당혹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죄책감, 사회적 비난 등이 해당된다. 이득은 도움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사회적 인정, 칭찬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시간 및 노력 등이 해당된다(서미정,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하철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몸이 피곤하거나’, ‘짐이 너무 많거나 무거워서’ 등의 이유로 자리를 양보했을 때의 신체적·위험 부담감이 크다고 느끼면 노약자에게 자리양보행동을 덜 한다고 보고되었다(최상진, 박가열, 손영미, 이장주, 2003). 서미정(2006)의 연구에서도 피해자를 도움으로써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같은 위험 부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변인들은 피해아를 돕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은 괴롭힘이 정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위해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위협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고되었고(Oliver, Hoover, & Hazler, 1994), 피해자는 대개 학급 구성원들에게 거부되고 덜 수용된다고 보고되었다(이은주,

2001; Salmivalli et al., 1996). 따라서 학급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관계 맺는 것을 피하게 된다(서미정, 2006).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므로 피해자를 도움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배제되거나 거부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느끼게 될 경우 직접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게 된다(김정훈, 이승연, 2016; Bellmore, Ma, You, & Hughes, 201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두려움과 사회적 지위 하락과 같은 위험 부담감이 주변인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변인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3) 피해자 귀인

피해자 귀인은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김현주, 2003; 지명희, 1998). 또래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이기적이고 알미운 행동을 하거나 약해 보이고 멍청한 행동 등 따돌림 당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83.4%)라고 응답하였다(김용태, 박한샘, 1997). 또한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대략 15~2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가해자의 행동을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lton, Bucci, & Hawker, 1999; Menesini, Eslea, Smith, Genta, Giannetti, Fonzi, & Costabile, 1997; Randall, 1995; Rigby & Slee, 1993).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괴롭힘 행동의 결과보다는 상황적 맥락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이상균, 2000).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대해 비행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리화한다는 것이다(김현주, 2003; 지명희, 1998). 즉,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집단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괴롭힘 행위 이후에 별다른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복적인 괴

롭힘 행위는 가해자들에게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괴롭힘 행위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김현주, 2003).

또한 피해자 스스로 고통받을만 하다고 비난하는 것 또한 괴롭힘 행동에 대한 자기면죄의 방법이 된다(Ferguson & Rule, 1983). 괴롭힘 결과에 대한 왜곡이나 비난의 귀인과 같은 도덕적 인지의 왜곡을 통해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도울 필요성이 없거나 가해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서미정, 2008).

문진명(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타인의 오프라인 괴롭힘은 피해 청소년의 내적 성향이나 가해 학생의 내적 성향의 탓으로 귀인을 하지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자신의 내적 성향으로 귀인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 관계내에서 부적응이나 괴롭힘 경험에 따라 자신의 관찰자인 경우와 행위자인 경우에 따라 귀인을 하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은영, 2012). 즉, 피해자의 탓이라고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피해자 귀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오프라인 괴롭힘의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오승화, 2018).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정도에 따라 주변인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변인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Ⅲ.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에 소재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설문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학교에 85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821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24부와 결측 사례 21부를 제외하여 총 77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385명(49.6%), 여학생 391명(50.4%)이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394명(50.8%), 중학교 2학년 382명(49.2%)이었다.

연구의 최종 표본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주변인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별하기 위해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자 유형 점수를 성별로 표준화(평균=0, 표준편차=1)하여 표준화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다른 역할의 점수보다 높을 때 특정 역할로 간주하였다(김정훈, 2016). 예를 들어, 가해자는 가해자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피해자, 가해동조자, 방관자 및 방어자의 점수보다 높으면 가해자 유형이 부여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가해자, 가해동조자, 방관자 및 방어자의 점수보다 높으면 피해자 유형이 부여된다.

<표 2> 연구대상의 분포

구분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자 유형			전체(%)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성별				
남학생	49(12.7)	54(14)	282(73.2)	385(100)
여학생	63(16.1)	50(12.8)	278(71.1)	391(100)
학년				
중 1	61(15.5)	57(14.5)	276(70)	394(100)
중 2	51(13.4)	47(12.3)	284(74.3)	382(100)
전체	112(14.4)	104(13.4)	560(72.2)	776(100)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최종 연구 표본인 주변인은 가해자 112명(14.4%)과 피해자 104명(13.4%)를 제외한 560명(72.2%)으로 총 560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주변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282명(73.2%), 여학생 278명(71.1%)이며, 중학교 1학년 276명(70%), 중학교 2학년 284명(74.3%)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등(1996)이 제작한 ‘참여역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 PRQ)’를 기초로 서미정(2008)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서미정(2008)이 재구성한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참여행동을 가해행동, 피해행동,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방어행동 총 5개로 구분하였다.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질문은 각 7문항이며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및 방어행동은 각 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참여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예시 및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 문항 예시 및 신뢰도 계수

참여행동	문항 예시	Cronbach's α
가해행동	나는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78
피해행동	어떤 친구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였다	.79
가해동조행동	반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힐 때 옆에서 부추긴 적이 있다	.84
방관행동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체 한 적이 있다	.93
방어행동	괴롭힘 당하는 친구에게 힘과 용기를 준 적이 있다	.95

2)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심홍진 외(2014)의 문항을 문선아(2016)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피해행동은 연구자가 문선아(2016)의 가해행동 척도를 피해행동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주변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아라(2016)가 구성한 척도와 Baker(2014)가 구성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척도로 참여행동 가해행동, 피해행동,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방어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질문은 각 12문항이며, 가해동조행동 6문항, 방관행동 5문항, 방어행동 6문항으로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참여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예시 및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문항 예시 및 신뢰도 계수

참여행동	문항 예시	Cronbach's α
가해행동	어떤 친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90
피해행동	어떤 친구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90
가해동조행동	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웃는 이모티콘이나 글을 쓴 적이 있다	.90
방관행동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채 한 적이 있다	.92
방어행동	나는 사이버 괴롭힘 당한 친구를 위로한 적이 있다	.97

3)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은 학급 내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와 Voeten(2004)이 고안한 척도를 기초로 심미경과 서미정(2013)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미경과 서미정(2013)이 재구성한 척도의 문항은 우리 반에서 한 친구가 ‘어떤 아이를 발로 차거나 때렸다면’, ‘어떤 친구의 나쁜 소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렸다면’ 등의 가해행동에 대해 반 친구들이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반 친구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를 ‘전혀 나쁘지 않다’(1점)에서 ‘매우 나쁘다’(4점)까지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4) 위협 부담감

위협 부담감이란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또래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김용태, 박한샘, 1997; Oliver et al., 1994)를 참고로 서미정(2006)이 구성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로한다면 나도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편을 든다면 괴롭히는 친구가 나에게 보복할까봐 두렵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움으로 인한 위험 부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5) 피해자 귀인

피해자 귀인은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현주(2003)이 구성한 척도와 서미정(2008)이 구성한 비난의 귀인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괴롭힘 피해자는 보통 성격에 문제가 있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는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괴롭힘 피해의 이유가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제주도 내 제주시 중학교 2곳, 서귀포시 중학교 2곳의 대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총 821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24부를 제외한 797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중 가해자와 피해자 및 결측 사례를 제외한 총 560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최종 연구대상자의 성

별 및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점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인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이란 다수의 대상이 가진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그룹화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으로 군집 내의 구성원들은 유사하게, 군집 간에는 상이하게 대상을 그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이학식, 임지훈, 2015). <연구문제 3>의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유형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간 사후 비교를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밝힐 수 없는 결합된 차이를 밝혀낼 수 있으며, 일원 분산분석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1종 오류 확률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5).

IV. 결과

1.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 간에는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r=.55, p<.01$)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행동과 가해동조행동($r=.51, p<.01$)과 가해동조행동과 방관행동($r=.41, p<.01$)의 순으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이 피해와 가해동조와의 연관이 높으며, 가해동조행동이 방관행동과도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간에는 사이버 괴롭힘 가해행동과 가해동조행동($r=.69, p<.01$)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행동과 피해행동($r=.45, p<.01$)과 피해행동과 가해동조행동($r=.45, p<.01$)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 가해행동은 피해 및 가해동조행동과 연관이 높고, 피해행동은 가해동조와의 연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에는 오프라인 괴롭힘 방관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방어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오프라인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같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어행동($r=.66, p<.01$), 피해행동($r=.63, p<.01$), 가해행동($r=.61, p<.01$), 가해동조행동($r=.44, p<.01$) 그리고 방관행동($r=.42, p<.01$) 순으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에서 같은 참여행동 사이의 연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동조행동과 사이버 가해행동($r=.52, p<.01$), 사이버 가해행동과 사이버 가해동조행동($r=.69, p<.01$)의 상관도 높게 나와 가해행동과 가해동조행동의 상관도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과 오프라인 가해동조행동($r=.51, p<.01$)의 상관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해행동과

가해동조행동은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모두에서 연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r=.55, p<.01$)과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피해행동($r=.38, p<.01$)의 상관도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에서 가해 및 피해행동 역시 참여행동 사이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오프라인 가해행동	1									
2. 오프라인 피해행동	.55**	1								
3. 오프라인 가해동조행동	.51**	.34**	1							
4. 오프라인 방관행동	.35**	.25**	.41**	1						
5. 오프라인 방어행동	.14**	.21**	.33**	.21**	1					
6. 사이버 가해행동	.61**	.37**	.52**	.30**	.11**	1				
7. 사이버 피해행동	.38**	.63**	.28**	.22**	.14**	.45**	1			
8. 사이버 가해동조행동	.43**	.31**	.44**	.27**	.08*	.69**	.45**	1		
9. 사이버 방관행동	.33**	.25**	.36**	.42**	.24**	.37**	.31**	.36**	1	
10. 사이버 방어행동	.09*	.19**	.19**	.04	.66**	.12**	.21**	.14**	.30**	1

*p<.05, **p<.01

2.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주변인 유형 구분

주변인을 대상으로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어떤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대상들을 집단화하는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평균법에서는 군집의 수를 사전에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몇 개의 군집이 적절한가는 세분화된 각 집단들의 표본수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군집내의 유사성과 군집간의 변별력이 높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이학식, 임지훈, 2015). 본 연구에서 집단 유형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군집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으나,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가 표본의 균형 면에서 가장 적합하고 군집 간 변별력 있는 결과의 해석이 가능하였으므로 주변인의 집단 특성에 따라 세 군집으로 나누어 추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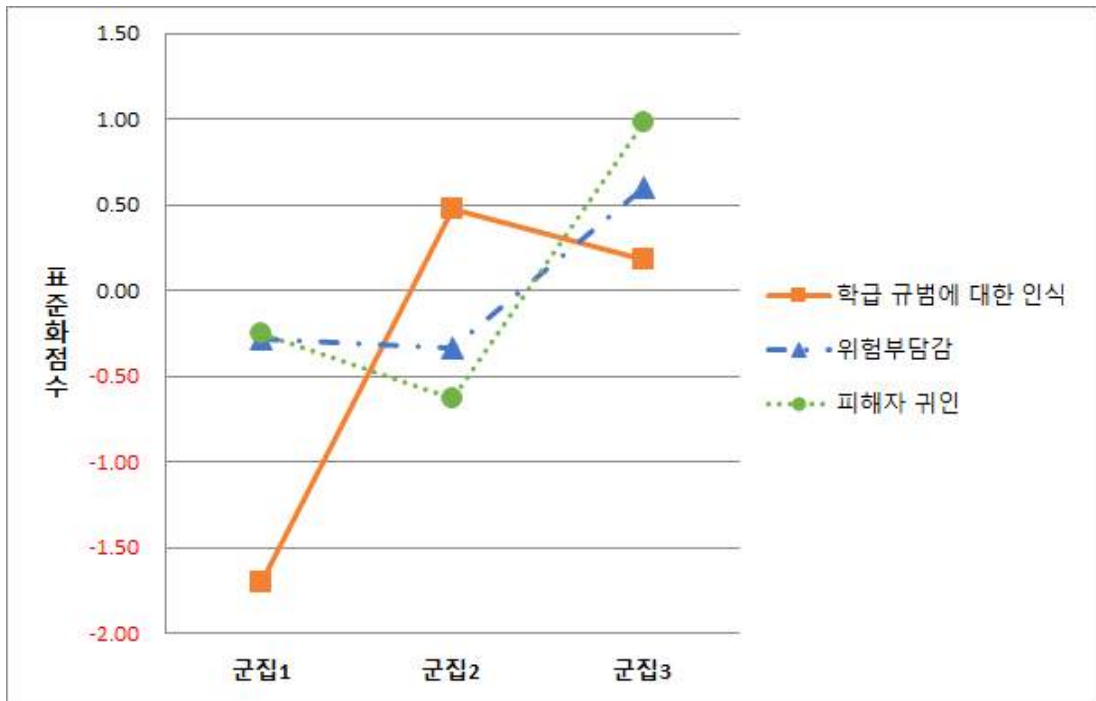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평균값이 세 개 군집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평균간 사후 비교를 위해 Scheffé($p < .05$)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세 군집 간에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F(2, 557)=427.73, $p < .001$], 위험 부담감[F(2, 557)=67.23, $p < .001$], 피해자 귀인[F(2, 557)=324.30, $p < .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내었다. 세 군집 간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원 자료를 표준화(평균=0, 표준편차=1)시켜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에 나와 있다.

<표 6>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심리적 특성	n(%)	군집1 96(17.1)	군집2 267(47.7)	군집3 197(35.2)	전체 560(100)	F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M(SD)	2.45(.67)c	3.81(.25)a	3.63(.38)b	3.51(.63)	427.73***
위험 부담감	M(SD)	1.99(.91)b	1.93(.92)b	2.94(1.05)a	2.29(1.08)	67.23***
피해자 귀인	M(SD)	2.03(.83)b	1.63(.60)c	3.32(.79)a	2.29(1.05)	324.30***

주. a>b>c 순의 평균크기. 다른 문자를 갖는 평균은 Scheffé(p<.05)검증에 의해 유의미하게 다름.

***p<.001



<그림 1>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표준화 점수

<표 5>와 <그림 1>의 결과를 토대로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군집을 명명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위험 부담감은 군집 2와 비슷한 수준이며,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

리는 정도는 군집 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집단에 속하는 주변인들은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학급 규범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친-가해형’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전체 주변인 가운데 17.1%(96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군집 2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군집 1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위험 부담감은 군집 1과 비슷한 수준이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정도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이 집단에 속하는 주변인들은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학급 규범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어 ‘반-가해형’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전체 주변인 가운데 47.7%(267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군집 3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인 부담감 역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군집 2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이 집단에 속하는 주변인들은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가해행동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편이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특성을 보이므로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전체 주변인 가운데 35.2%(197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오프라인 주변인의 유사성에 따른 주변인 유형 분류 결과, 반-가해형 집단이 47.7%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해당 유형에 속했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35.2%, 마지막으로 친-가해형 집단이 17.1%를 차지했다.

3.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차이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답하기 위해 <연구문제 2>에서 도출된 주변인의 특성에 따른 집단 유형, 즉 ‘친-가해형’, ‘반-가해형’,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 간 사이버 괴롭힘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방관 및 방어행동의 평균차이 검증 및 평균 간 사후비교를 위한 Scheffé(p<.05)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주변인 유형					F
	n(%)	친-가해형 84(16.4)	반-가해형 251(49)	책임전가· 위험부담형 177(34.6)	전체 512(100)	
가해행동	M(SD)	1.23(.36)b	1.15(.27)b	1.35(.47)a	1.23(.38)	14.97***
피해행동	M(SD)	1.19(.34)a	1.09(.24)b	1.28(.43)a	1.18(.34)	16.43***
가해동조행동	M(SD)	1.12(.33)ab	1.05(.20)b	1.21(.40)a	1.12(.31)	13.60***
방관행동	M(SD)	1.58(.84)ab	1.47(.77)b	1.80(.86)a	1.60(.82)	8.81***
방어행동	M(SD)	1.67(.97)b	2.00(1.19)a	2.00(1.02)a	1.95(1.10)	3.26*

주. a>b>c 순의 평균크기. 다른 문자를 갖는 평균은 Scheffé(p<.05)검증에 의해 유의미하게 다름.

*p<.05, ***p<.001

사이버 괴롭힘 가해행동 수준은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가해형, 반-가해형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09)=14.97, p<.001]. 평균간 사후분석 결과,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친-가해형 및 반-가해형 집단보다 사이버 가해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가해형 집단과 반-가해형 집단 간에는 사이버 가해행동 수

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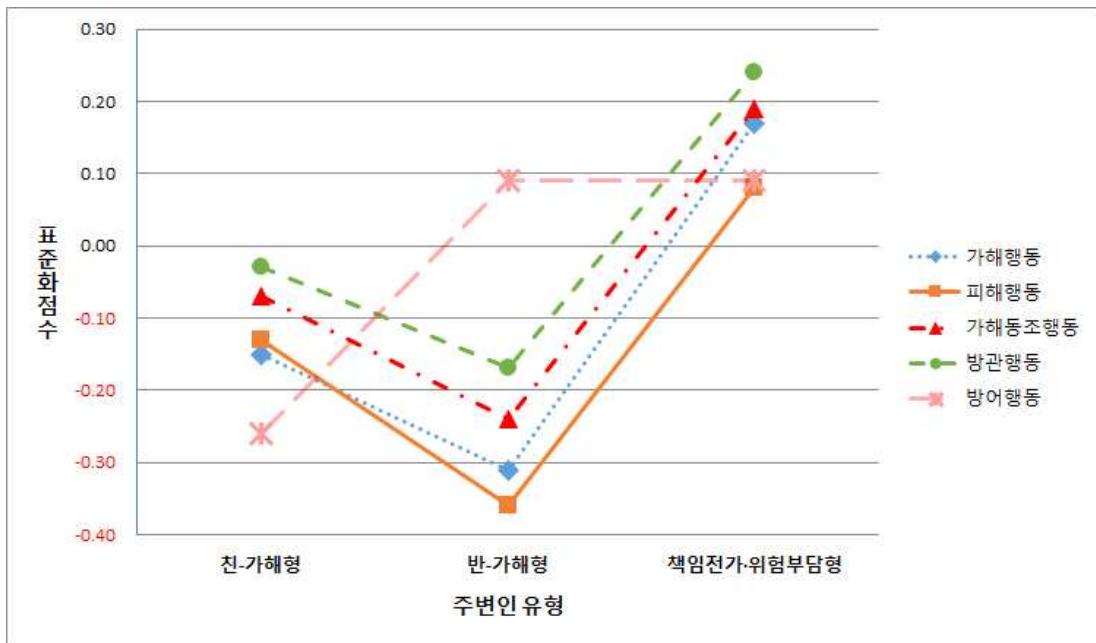
사이버 괴롭힘 피해행동 수준은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가해형, 반-가해형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09)=16.43, $p<.001$]. 평균간 사후분석 결과,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반-가해형 집단보다 사이버 피해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과 친-가해형 집단 간에는 사이버 피해행동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이버 괴롭힘 가해동조행동 수준은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가해형, 반-가해형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09)=13.60, $p<.001$]. 평균간 사후분석 결과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반-가해형 집단보다 사이버 가해동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괴롭힘 방관행동 수준은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가해형, 반-가해형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09)=8.81, $p<.001$]. 평균간 사후분석 결과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은 반-가해형 집단보다 사이버 방관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괴롭힘 방어행동 수준은 반-가해형 및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높고, 그 다음으로 친-가해형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09)=3.26, $p<.05$]. 평균간 사후분석 결과 반-가해형 및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이 친-가해형 집단보다 사이버 방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 유형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원 자료를 표준화(평균=0, 표준편차=1)시켜,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2>에 나와 있다.



<그림 2>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 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표준화 점수

친-가해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방어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즉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길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낮아 가해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방어행동에 가장 적게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및 방관행동은 반-가해형 집단에 비해 조금 더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가해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및 방관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방어행동 수준은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즉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길 기대하는 정도가 높고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가장 낮아 방어행동에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방관행동 수준이 가장 높고, 방어행동 수준도 높은 집단으로 전반적으로 각 참여행동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즉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위험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주변인들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모든 행동에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각 집단은 사이버 괴롭힘에 참여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개입은 각 주변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이 중복되어 나타나며 가해자, 피해자에 비해 역할 유동성이 높은 주변인의 특성이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 2학년에서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협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유형을 파악해보고, 그 유형에 따라 사이버 가해 및 피해행동,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그리고 방어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같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오프라인과 사이버의 각 참여행동 사이의 연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사이버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관계에서 가해 및 피해 사이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결과(김경은, 최은희, 2017; 김경은, 최은희, 2012; 양영석, 안세영, 최보영, 2016; Hinduja et al.,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오프라인 괴롭힘 방관행동은 오프라인 괴롭힘 방어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였으나, 사이버 괴롭힘 방어행동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방관행동을 보이는 경우 오프라인 괴롭힘에서 방어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나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는 방어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방관 행동의 원인 및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방관 행동은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거나 또래의 규범을 어기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협 부담감을 많이 느껴 자신을 보호하고자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기중심화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타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낸다(구본용, 1997; 김규리, 2019; 김소영, 1999; 서미정, 2008).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오프라인 괴롭힘의 방관자가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대면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괴롭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방어행동과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 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괴롭힘 상황에서 2/3 이상을 차지하는 주변인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다른 참여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해 오프라인 괴롭힘을 함께 고려하고, 주변인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은 학급 규범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친-가해형’, ‘반-가해형’, ‘책임전가·위험부담형’ 등 세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반-가해형이 4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책임전가·위험부담형은 35.2%, 친-가해형은 1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전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위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오프라인 괴롭힘 참여자 역할 중 방관자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집단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오프라인 괴롭힘 방관자의 특성을 보면 방관자들은 피해자를 돕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며,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왜곡하거나 비난의 귀인과 같은 도덕적 인지의 왜곡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결과(김소영, 1999; 서미정,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오프라인 괴롭힘의 주변인 유형에 따라 집단 간 가해 및 피해행동, 가해동조행동, 방관행동 그리고 방어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집단별 특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가해형 집단은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낮아 가해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주변인들은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방어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 괴롭힘에서도 방어행동에 가장 적게 개입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의 각 참여행동이 같은 역할 간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음과 연관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가해형 집단은 학급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 유형의 주변인들은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방어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및 방관행동의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해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도 방어행동에 가장 많이 개입하며, 다른 참여행동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은 괴롭힘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유형의 주변인들은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가해, 피해, 가해동조, 방관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어행동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이버 괴롭힘 각 참여행동에 많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대면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가해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덜 작용하여 가해 및 가해동조행동에도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문선아, 2016; 조영은, 201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전가·위험부담형 집단의 경우 오프라인 괴롭힘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위험 부담감이 덜 작용하여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가해, 가해동조, 방관행동에도 많이 개입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오프라인 괴롭힘과는 달리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감정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양갈음을 하려는 동기로 사이버 괴롭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Starmoulis & Farley, 2010; Varjas & Henrich, 2009; 김경은, 2011)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특성이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의 2/3이상을 차지하는 주변인 역시 오프라인과 사이버 괴롭힘에서 참여행동 간의 관련성이 높아 주변인의 중재 및 괴롭힘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측면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김경은, 윤희미,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김경은, 최은희, 2017; 양영석, 안세영, 최보영, 2016),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과 주변인 행동을 포함하여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해·피해행동뿐만 아니라 주변인 행동 역시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련성이 높음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현장에서 괴롭힘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한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차이를 횡단적으로만 밝혔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변인들은 역할 유동성이 크다고 보고되어(서미정, 2015; 심희옥, 2005) 시간 흐름에 따른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참여행동의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학급 규모에 대한 인식, 위험 부담감, 피해자 귀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인 집단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괴롭힘 주변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 도덕적 이탈, 동조성 등의 개인적 변인들을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배제된 주변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아라 (2016).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중학생 주변인의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공감능력 및 사이버공간 특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미성 (2015).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7).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e.go.kr/>에서 2018년 12월 23일 인출.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e.go.kr/>에서 2018년 12월 23일 인출.
-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5-25.
- 김규리 (2019). 청소년의 반사회적 또래 동조성이 또래 괴롭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201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변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은, 윤희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경은, 최은희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8, 75-97.
- 김선정 (2014).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간의 관계: 지각된 학급규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리 (2015). 심리·사회적 특성이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 전통적 괴롭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1999).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집단 따돌림’ 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 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pp. 55-84).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7(5), 121-149.
- 김정훈 (2016).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방관자 유형별 친가해행동 및 방어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 이승연 (2016). 또래괴롭힘 방관자 하위유형의 탐색. 상담학연구, 17(5), 377-398.
- 김현주 (2003).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 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581-1607.
- 두산백과.
- 모정은 (2013). 초등학생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요인 검사문항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미영 (2017). 중학생의 기질, 지각된 양육태도와 괴롭힘 주변인 행동과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 및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아 (2016).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진명 (2000).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또래 피해 지각에 따른 또래 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대식 (2015).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익명성, 공격성,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만 (2016). 긴장요인, 사회유대, 자기통제, 인터넷 사용 및 오프라인 비행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위계적 선형 모형을 통한 4년 종단자료 분석. 상담학연구, 17(6), 381-394.
- 서미정 (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서미정 (2015). 아동 후기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의 안정성 및 변화와 환경적 특성과의 관계: 주변또래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4), 17-32.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19), 79-129.
- 송지연 (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미경, 서미정 (2013).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 및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변인 : 학급규범과 교사감독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2), 225-246.
- 심홍진, 한은영, 박병선, 박남기 (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14-04.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심희욱 (2005). 또래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 종단 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양영석, 안세영, 최보영 (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 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221-24..
- 윤성우 (2004). 집단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 프로그램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화 (2018). 초등학생의 개인, 또래, 교사, 학급 변인과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학회. 23(1), 45-63.
- 오인수 (2011).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 이가장 (2017).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과 괴롭힘에 대한 규준적 신념이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0). 청소년의 또래폭력 귀인양식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삽화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314-339.
- 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사이버불링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령군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3(1), 120-144.
- 이소영 (2018). 청소년 사이버 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2014).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89-109.
- 이아름 (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 언어폭력성, 사회성이 사이버 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한국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68.
- 이학식, 임지훈 (2015). SPSS 22 매뉴얼. 집현재.
- 임숙희, 송영일, 곽대훈 (2018).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7(4), 243-266.
- 임재연 (2013).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긍정적 강점의 차이. 학교사회복지학회, 24, 131-151.
- 장은영 (2012).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귀인 편향과 방관적 태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호 (2015). 중학생의 또래동조성과 괴롭힘 주변인 역할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윤 (2018). 학교폭력 방관자 하위유형 탐색: 공감, 자기효능감, 불안, 동조성, 초기부적응도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은 (2017).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대학생의 주변인 행동 의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오 (2013). 新사이버불링 유형과 문제점.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미래창조과학부), 5-15.
- 조윤오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유형화 연구: 상담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 5.
- 지명희 (1998).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윤희 (2005).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발표.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에서 2019년 5월 10일 인출
- 최기원 (2012). 남녀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와 또래괴롭힘 방어 및 방관행동의 관계 -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미, 김동일 (2012). 사회적 기술, 따돌림 피해경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인과적 모형 탐색. 상담학연구, 13(1), 135-148.
- 최숙영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6), 35-48.
- 최상진, 박가열, 손영미, 이장주 (2003). 지하철에서 누가, 왜 자리를 양보하는가?: 양보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43-66.
- 최진오 (2015).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11(5), 195-214.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2년 정보문화실태조사.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

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 Baker, M. (2014). Cyberbullying and the bystander: What promotes or inhibits adolescent participation?. Doctoral theses, University of Exeter.
- Barlett, C. & Coyne, S. M. (2014). A meta-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cyber-bullying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age. *Aggressive Behavior*, 40(5), 474 - 488.
- Bellmore, A., Ma, T. L., You, J. I., & Hughes, M. (2012). A two-method investigation of early adolescents' responses upon witnessing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Journal of Adolescence*, 35(5), 1265-1276.
- Boulton, M. J., Bucci, E., & Hawker, D. D. (1999). Swedish and English secondary school pupils' attitudes towards, and conceptions of, bullying: Concurrent links with bully/victim involve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0(4), 277-284.
- Chisholm, J. F., & Day, S. K. (2013). Current trends in cyberbullying. *Journal of Social Distress & the Homeless*, 22(1), 35-57.
- Dooley, J. J., Pyzalski, J., & Cross, D. (2009). Cyberbullying Versus Face-to-Face Bullying: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Review. *Zeitschrift für Psychologie/Journal of Psychology*, 217(4), 182-188.
- Ferguson, T. J., Rule, B. G. (1983).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on anger and aggression. In R.G. Geen & E.I. Donnerstein(Eds.), *Aggression :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Vol.1, pp.41-74). New York : Academic Press.
- Gini, G., Pozzoli, T., Borghi,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4), 617-638.
-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 512-527.
- Heinmann, P. (1973). *Mobbing*. Oslo: Gyldendal.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off, D. L., & Mitchell, S. N. (2009). Cyberbullying: Causes, effects, and remedi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7(5), 652-665.
- Huesmann, L. R. (2007).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violence: Scientific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2, 6-13.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Massachusetts: Slackwell Publishing.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 What is Cyber Bullying? Blackwell Publishing Ltd. 41-66.
- Langos, C. (2012). Cyberbullying: The challenge to defin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6), 285-289.
- Latane, B., & Darley, J. M. (1970). The Unresponsive Bystander: Why Doesn't He Help?. New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 Law, D. M., Shapka, J. D., Hymel, S., Olson, B. F., & Waterhouse T. (2012). The changing face of bullying: An empirical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and internet bullying and victimization. *Computer in Human Behavior*, 28(2), 226-232.
- Macklem, G. L. (2003). Bullying and teasing: Social power in children's groups.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 Menesini, E., Eslea, M., Smith, P. K., Genta, M. L., Giannetti, E., Fonzi, A., & Costabile, A. (1997). Cross-national comparison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s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Aggressive Behavior*, 23(4), 245-257.
- Newman, B. M., Lohman, B. J., & Newman, P. R. (2007). Peer group membership and a sense of belonging: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ce*, 42, 241-263.
- Nipedal, C., Nesdale, D., & Killen, M. (2010). Social group norms, School norms, Children's aggressive intention. *Aggressive Behavior*, 36, 195-204.

- Obermaier, M., Fawzi, N., & Koch, T. (2014). Bystanding or standing by? How the number of bystanders affects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cyberbullying. *New Media & Society*, 1461444814563519.
- Oliver, R., Hoover, J. H., & Hazler, R. (1994). The perceived roles of bullying in small-town midwestern school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 416-420.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school*.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well.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Randall, P. (1995). A factor study on the attitudes of children to bullying.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11(3), 22-26.
- Raskauskas, J., &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64.
- Rigby, K. (2007). *Bullying in school: And what to do about it*. Camberwell, Victoria: ACER.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ac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almivalli, C., Lappalainen, M., & Lagerspetz, K. (1998).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A two-year follow-up. *Aggressive Behavior*, 24(3), 205-218.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Voeten, M., &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0(5), 668-676.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 4, 243-248.
- Smith, P. K. & Sharp, K, (1994). School Bullying: Insight and Perspectives(Eds.). London: Routledge.
- Stamoulis, K., & Farley, F. (2010). Conceptual approaches to adolescent online risk-taking.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3(2), 151-159.
- Sticca, F., & Perren, S, (2012). Is cyberbullying worse than traditional bullying? Examining the differential roles of medium, publicity, and anonymity for the perceived severity of bully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739-750.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2), 97-111.
- Thornberg, R. (2007). A classmate in distress: schoolchildren as bystanders and their reasons for how they ac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0(1), 5-28.
- Varjas, C. C., & Henrich, J. M. (2009).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of bullying, cyberbullying, and school safety. *Journal of School Violence*, 8(2), 159-176.
- Werner, N. E., & Nixon, C. L. (2005).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3), 229-243.

Willard, N.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c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14-S21.

3.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체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다.	1	2	3	4	5
3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4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아도 평소대로 내 할 일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또래괴롭힘 상황에 별 관심이 없던 적이 있다.	1	2	3	4	5
7	괴롭힘 당하는 친구에게 힘과 용기를 준 적이 있다.	1	2	3	4	5
8	괴롭힘 당하는 친구와 잘 놀아준 적이 있다.	1	2	3	4	5
9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로해 준 적이 있다.	1	2	3	4	5
10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괴롭힘 상황을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1	2	3	4	5
11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자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가해자에게 괴롭히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5
13	반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힐 때 옆에서 부추긴 적이 있다.	1	2	3	4	5
14	다른 친구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도 괴롭히는데 동참한 적이 있다.	1	2	3	4	5
15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구경하려고 그 주변으로 간 적이 있다.	1	2	3	4	5
16	괴롭힘 상황을 구경하라고 다른 친구들을 부른 적이 있다.	1	2	3	4	5
17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고 비웃은 적이 있다.	1	2	3	4	5
18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붙잡는 등 괴롭히는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	1	2	3	4	5

4.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내가 했던 행동 문항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	나는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친구에게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친구에게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친구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친구에게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여럿이 놀 때 고의로 한 친구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1	2	3	4	5

5.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당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내가 당한 행동 문항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	어떤 친구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였다.	1	2	3	4	5
2	친구들이 나에게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다.	1	2	3	4	5
3	친구들이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렸다.	1	2	3	4	5
4	친구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5	친구들이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았다.	1	2	3	4	5
6	친구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1	2	3	4	5
7	어떤 친구가 나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1	2	3	4	5

6. 여러분의 학급에서 누군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가정할 때, 반 친구들이 그 행동을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우리 반에서 한 친구가 아래의 행동을 했다면...		우리 반 친구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			
		전혀 나쁘지 않다	별로 나쁘지 않다	조금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어떤 친구를 발로 차거나 때렸다면	1	2	3	4
2	어떤 친구에게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했다면	1	2	3	4
3	어떤 친구의 신체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렸다면	1	2	3	4
4	어떤 친구의 나쁜 소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렸다면	1	2	3	4
5	여럿이 놀 때 어떤 친구를 고의로 끼워주지 않았다면	1	2	3	4

7.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로한다면 나도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	1	2	3	4	5
2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편을 든다면 괴롭히는 친구가 나에게 보복할까봐 두렵다.	1	2	3	4	5
3	괴롭힘 당하는 친구와 함께 논다면 나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4	괴롭힘을 당한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 다른 친구들이 나와 놀지 않을 것 같다.	1	2	3	4	5
5	괴롭힘 당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면 반에서 나의 인기가 떨어질 것 같다.	1	2	3	4	5

8.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괴롭힘 피해자는 보통 성격에 문제가 있다.	1	2	3	4	5
2	괴롭힘 피해자는 재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3	괴롭힘 피해자가 잘못해서 괴롭힘 당할 때가 있다.	1	2	3	4	5
4	괴롭힘 피해자는 괴롭힘 당하는 데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괴롭힘 당하는 친구는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1	2	3	4	5

▣ 다음은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고,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사이버 괴롭힘**”이란 온라인에서 메신저(messenger)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누군가에게 고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고의로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거나, 욕하기
 -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 고의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 등

“**메신저(messenger)**”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트위터, 밴드, 카카오토리 등 온라인으로 1:1 또는 그룹 채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9.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1 채팅 또는 그룹 채팅에서 내가 했던 행동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	어떤 친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1	2	3	4	5
2	어떤 친구를 비웃고 깎아내린 적이 있다.	1	2	3	4	5
3	어떤 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을 그 친구나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1	2	3	4	5
4	어떤 친구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어떤 친구의 외모, 성격, 가정환경, 약점 등으로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6	어떤 친구를 협박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어떤 친구를 무시하며 채팅방에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어떤 친구가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힌 적이 있다.	1	2	3	4	5
9	일부러 어떤 친구만 남겨두고 다른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나간 적이 있다.	1	2	3	4	5
10	어떤 친구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온라인 상에 퍼뜨린 적이 있다.	1	2	3	4	5
11	어떤 친구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등)를 퍼뜨려 그 친구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어떤 친구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공개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다음과 같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1 채팅 또는 그룹 채팅에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	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웃는 이모티콘이나 글(예, '하하')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대화나 댓글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을 부추긴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함께 공유하려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초대할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사이버 괴롭힘의 메시지나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누군가 친구를 괴롭힐 때 피해자가 싫어할 메시지나 댓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6	다른 친구가 누군가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시작하면 나도 괴롭히는데 동참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사이버 괴롭힘 당한 친구를 위로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그룹 채팅방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사이버 괴롭힘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사이버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자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사이버 괴롭힘 이후에 피해자를 위로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사이버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괴롭힘 상황을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체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보고 그냥 채팅방을 나온 적이 있다.	1	2	3	4	5
16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5

11.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당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1 채팅 또는 그룹 채팅에서 내가 당한 행동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1	어떤 친구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1	2	3	4	5
2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깎아내린 적이 있다.	1	2	3	4	5
3	어떤 친구는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을 나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1	2	3	4	5
4	친구들은 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친구들은 나의 외모, 성격, 가정환경, 약점 등으로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6	친구들은 나를 협박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며 채팅방에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친구들은 내가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힌 적이 있다.	1	2	3	4	5
9	친구들은 일부러 나만 남겨두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간 적이 있다.	1	2	3	4	5
10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온라인 상에 퍼뜨린 적이 있다.	1	2	3	4	5
11	친구들은 나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등)를 퍼뜨려 나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친구들은 나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공개한 적이 있다.	1	2	3	4	5

♣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Abstract

Types b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ffline Bullying Bystanders and Participant behaviors in Cyb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Yeon-Ju Heo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jung Seo

This study focused on the adolescents who witness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reflecting the group contextual view of offline bullying, taking into account the phenomenon of bullying spreading beyond the offline and cyber domains. First,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ffline bullying and cyber bullying: bullying, victimizing, bully-following, outsider and defending behaviors. The peripherals of offline bullying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erception of class norm, risk burden and similarity of victim attribution,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yber bullying behavior among the subtypes derived. In order to review those, we conducted a self-report survey of middle school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in Jeju island, and we carried out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data of 560 persons classified as bystand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 First,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offline and cyber bullying behaviors. The correlation of the same participation behavior is generally high between offline and cyber bullying, indicating a high link between offline and cyber participant behaviors.

Second,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bystanders based on the perception of class norms reflect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ystanders, and risk burden, and variable of victim attribution. As a result, the types of bystanders were classified as 'pro - bullying' (17.1%), 'anti - bullying' (47.7%) and 'liability transferring · burden of risk' (35.2%). The 'pro - bullying'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 of expectation that the class members perceive the bullying behavior as bad. The 'anti - bullying' group showed the opposite pattern to the 'pro - bullying' group and showed the highest expectation that the class members perceive the bullying behavior as bad. The 'liability transferring · burden of risk' group showed that they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bullying behavior onto the victim, and they seem like the group reflecting the feature of outsiders among bystanders because they feel the big risk burden about helping the victim in the offline bullying situation.

Finally, the study has shown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bully-following behavior, outsidings behavior, defensive behavior and defensive behavior of cyber bullying by the types of offline bullying bystanders. In other words, the 'pro-bullying' group positively perceived the bullying behavior as having the lowest degree of expectation that the class members perceive the bullying behavior badly. This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 of the defensive behavior in the cyber - bullying behavior. The 'anti-bullying' group negatively perceived the bullying behavior as having the highest degree

of expectation that the class members perceived the bullying behavior badly. This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the defensive behavior in the cyber bullying participant behavior showing the opposite result with the 'pro-bullying' group. The 'liability transferring · burden of risk' group blamed the victim for the cause of the bullying behavior and were feeling the highest psychological burden. This type showed the highest level of bullying, damage, taking part in bullying and defensive behavior. And the level of defensive behavior was high.

Through high correlation between offline and cyber bullying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at we should intervene simultaneously in offline and cyber bullying in order to reduce the bullying on the spot. Also, by showing tha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ffline bullying bystanders are reflected in the cyber bullying participant behavior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cyber bullying mediation through the offline bullying bystanders. However, in future research,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is needed to clearly understand how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around offline bullying are related to cyber bullying behavior. In addition, we can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 bullying behavior and related behaviors by examining more various variabl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around the offline bullying.

Keywords: offline bullying, cyber bullying, bystanders, cluster analysis